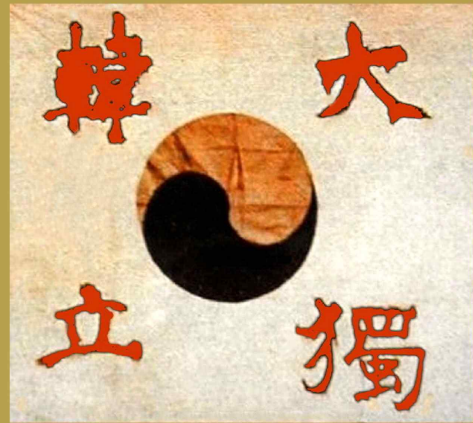


대한독립 50인

조영규 글과 그림



안중근 등 독립군의병의사열사 18인, 김구 등 임시정부 및 의정원 요원 16인,
손병희 등 종교계 6인, 헐버트 등 외국인 4인,
민영환 등 대한제국의 관료 3인, 윤동주 등 문인 3인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
혼은 살아 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1915년 박은식의 한국통사(韓國痛史) 결론



Copyright

대한독립 50인

@ 조영규, 2016

발행일 | 2016년 5월 일

지은이 | 조영규

펴낸이 | 전선희

펴낸곳 | 아트월드 출판사

출판등록 | 2013년 8월 12일 제385-2013-000047호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23번길 47,
103-2101호 (호계동, 샘마을 대우A)

사 무 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0번길 39
상가 3층 302호 (호계동, 무궁화 태영A)

전 화 | 031-344-7309

전자우편 | artworld@daum.net

저자 홈페이지 | www.choyeung.com

저자 블로그 | <http://blog.daum.net/choyeungart>

아트월드 블로그 | <http://blog.daum.net/artworld66>

값 | 원

ISBN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저자소개]

저자는 서양화가로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홍익대 미술디자인 교육원 서양화 실기과정 및 서울대 경영대학 고급경영자과정 수료, 서양화 개인전 (초.풍전) 10회 및 연합전 190회 개최, 뉴욕 국제인물화 공모전 입상 등, 현재 개인 스튜디오에서 전업화가로 활동 중.

〈저서 20권〉

『모네와 지베르니아이즈 (전2권, 체험판 2권)』, 『The Ten-미국 인상주의 거장들 (전2권, 체험판 2권)』, 『모네와 가이 로즈』, 『미국의 인상주의 걸작선 [①풍경화, ②바다풍경화, ③인물화, ④초상화 및 누드화> ⑤꽃과 정물화] (전5권)』, 『15c-20c 거장화가 100명, 마음의 우주, 어머니』 『15c-20c 거장화가 100명, 생각의 우주, 독서』 『모네와 114명의 지베르니아이즈, 합권』 『The Ten-미국 인상주의 거장들, 합권』 『서양화가 조영규, 화집과 미술도서』 『대한독립 50인』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콘텐츠 전자책》 3권 선정

〈논문 5편〉

[지방자치제 본격실시에 따른 전원확보 전략과 해결방안-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995년] 등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초상회화협회, 가톨릭미술가회, 경기미술협회, 안양미술협회 회원,

관악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 아트월드

편집자



Contents

1 표지	267 여운형	602 이준
2 속표지	274 조용은	618 만영환
3 판권	294 안재홍	633 종교계의 독립운동가
4 저자	309 신익희	634 손병희
5 Contents	322 독립군, 의병, 의사, 열사	644 오세창
7 Prologue	324 최익현	658 한용운
44 2010년 대한독립전	334 이강연	670 김마리아
45 축사	346 강우규	683 함석헌
46 작가노트	359 이회영	689 이승훈
48 안중근의사 기념관 전시	369 홍범도	705 독립정신을 일깨운 문인
49 평촌아트홀 전시	384 남자현	707 심훈
51 조선일보 보도	391 김동삼	719 이원록
52 대한독립 50인	405 안중근	728 윤동주
58 임정, 임시의정원 요원	434 이재명	743 대한독립을 도운 외국인
59 박은식	449 김좌진	745 호머 헬버트
73 서재필	465 오동진	758 손문(쑨원)
90 이시영	471 박재혁	770 장개석(장쑤스)
106 이동영	485 백정기	778 프랭크 스코필드
118 양기탁	497 이봉창	797 참고문헌
129 이승만	506 이범석	801 한국근대외교사 일람
172 김구	516 유관순	804 대한제국 사건 및 단체
192 안창호	538 윤봉길	820 아트월드 출판사 책방
215 김창숙	549 박차정	821 뒤표지
228 신채호	568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	
242 김규식	570 (고종황제)	
259 조만식	591 이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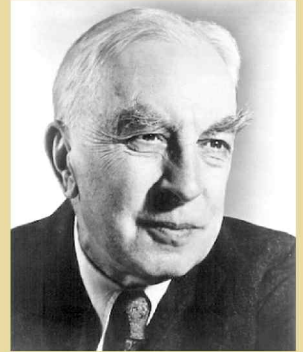
안중근의사가 뤼순옥중에서 간절히 갈구하며 쓴 <독립>

Prologue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데 있다."

-아놀드 조지프 토인비(1889-1975)

1919.1.18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영국의 역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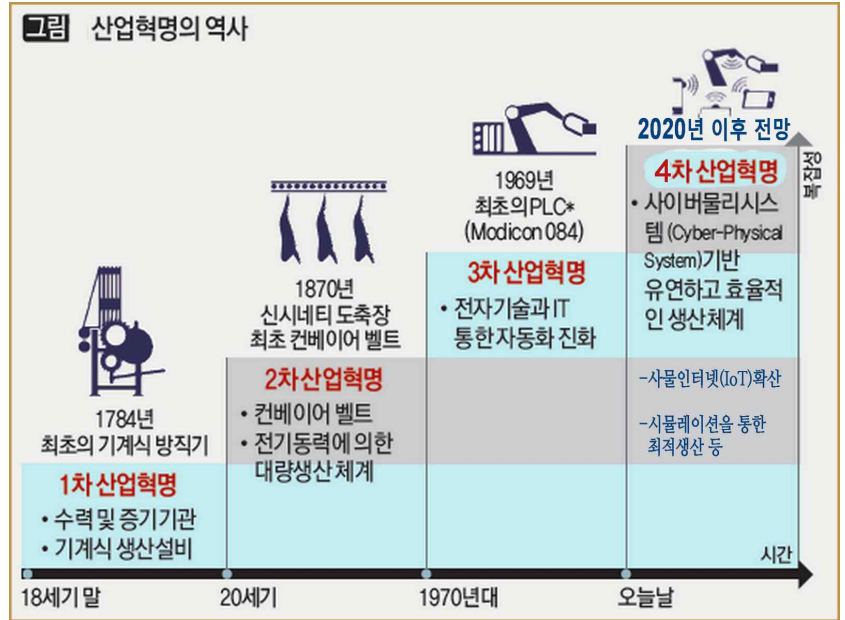
1. 1,2차 산업혁명(産業革命)은 열강의 식민지정책으로 연결

■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은 식민지 정책으로 발전

영국의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1852-1983)는 1760-1840년에 일어난 산업혁명(産業革命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1884년 저서의 제목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용했다. 산업혁명의 세가지 발견에서 첫째 철강(鐵鋼)은 18세기에 이미 해상강국이었던 영국이 거대한 해군력을 키우게 했다. 둘째 증기기관(蒸氣機關)으로 고속함정이 생기고, 증기 철도는 산업전반의 교통 및 물류유통에 획기적 진전을 낳았다. 셋째 전동기의 방적기계(紡織機械)로 짠 제품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진출했다. 이와 같은 3대 발명은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植民地)정책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잉여 생산물의 수출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당시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되었다. 즉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산업사회로 비약하였고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를 넓혔다.

그러다가 1763년 파리조약 이후에는 반대로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와 1775년의 미국 독립전쟁으로 아메리카가 식민지에서 잃었다. 그러나 영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을 향해 식민지를 계속이어나갔다. 1803년에는 인도 전체를 가졌다. 결국 전 세계 인구의 1/4, 면적의 1/4을 식민지 국가

로 만들었다. 1837~1901년까지 영국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시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1898년에 중국과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지배하였고 100년후에야 반환했다. 영국이 참전한 1914~1918년의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항복하므로써 전쟁이 끝났다. 영국은 승전으로 독일 대신에 요르단과 이라크를 식민지화했다. 인접한 식민지 아일랜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1921년에 자치국으로 풀었다가 1949년에 완전 독립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에서 1947년에 독립했고, 종래 영연방을 이룬 나라중에 53개국에 독립국가가 되었다.



앨빈 토플러도 1980년에 「제3의 물결」에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예견하였듯이 2016년 1월 23일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WEF>에서 곧 닥아올 산업사회에는 [제4차 산업혁명 : Industry 4.0]이라 명명하여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融合)하는 기술 혁명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같이 서구열강들이 팽창을 가능케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250년 전부터 생긴 산업혁명이었다. 동양과 달리 서구는 벌써 ‘유럽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사기술과 효율적 정치와 경제 및 관료제도의 발전을 이룩해 갔다. 이는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식민지 시장의 확충을 초래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1854년에 미국으로부터 굴욕적으로 개항을 당하였으나 무력적인 개화는 아니었다. 1853년 1년간 서구의 무기 등 산업설비를 보고 결정했다. 반면에 조선도 그로부터 20년후에 일본을 위시한 열강을 통하여 무력적으로 서구문명, 이념, 제도 및 문물이 동시에 밀려 들어왔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는데에는 준비가 부족하여 혼란을 야기했고 결국에는 망국(亡國)으로 이어졌

다. 즉 산업혁명이라는 무서운 추세를 방치하고 대처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 미국과 독일 등의 제2차 산업혁명으로 제국주의 대두

19세기 후반 제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미국과 독일 등이 20세기 전반에 철강, 자동차, 전기, 화학 등의 분야에서 영국을 앞질렀다. 따라서 영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를 위협했다. 이로써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제치고 선진 산업 국가로서 자리 잡았다.

제2차 산업혁명은 침략주의적 경향인 제국주의(帝國主義)의 대두 및 전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내연 기관과 화학 산업에 꼭 필요한 석유와 고무, 새로운 전기 산업과 원동기의 제조에 필요한 구리 등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들 원료의 공급지에 대한 각국간의 치열한 쟁탈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완제품과 잉여 자본의 투자를 위한 시장 확보의 필요성은 이들 국가 간에 팽창주의적 대결을 촉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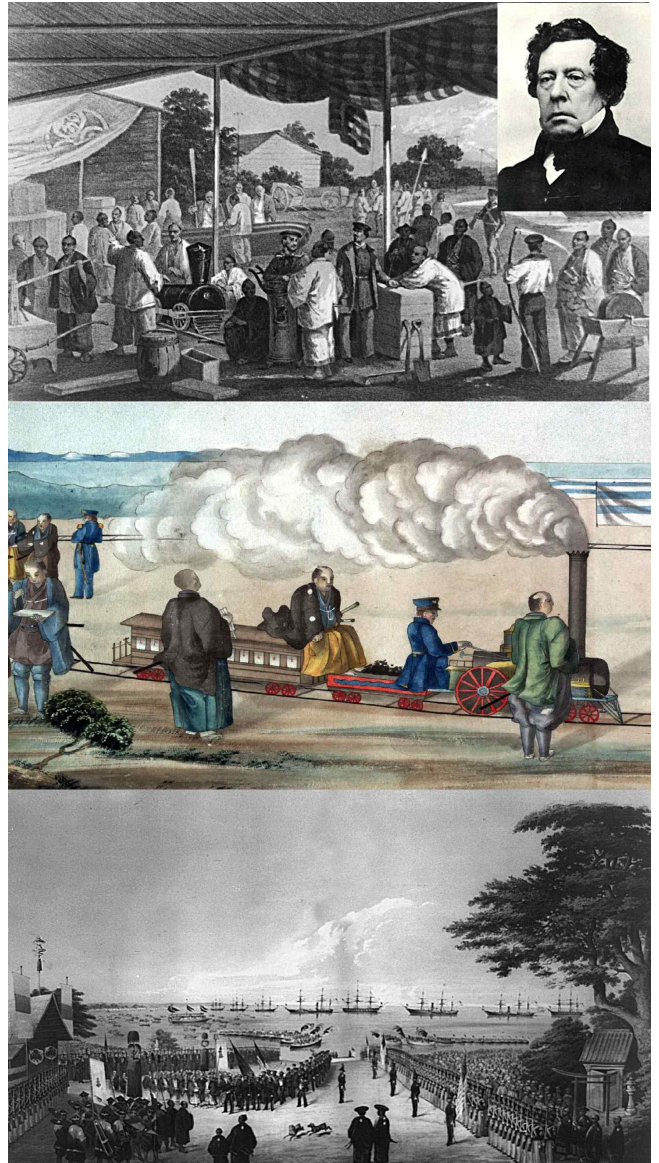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의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분할된 세계지도

따라서 영국의 「1차 산업혁명」과 독일 미국 등의 제2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200년 전후로 결국 한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식민지시대로 변화될 것을 아무도 몰랐다.

2. 1854년, 미국에 일본의 굴욕적인 강제 개항(開港)과 정한론(征韓論)

■ 1854년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성공은 식민지 정책으로 연결

원래 쇄국(鎖國)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서구열강의 개항 억압에 대하여 쇄국정책을 200년간 이어 왔다. 16세기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덕천 막부) 시기부터 개항시에 지방영주들이 무기를 손에 넣어 막부로 향하여 대항할까 두려워 이를 막았다. 미국은 매슈 페리 해군제독으로 하여금 요코하마의 해안에 상륙하여 500명의 선원과 해병들을 이끌고 3주간 협상을 하였다. 그들은 해군력 과시와 더불어 해안에서 모형증기선, 무기, 전화기, 시계 및 농기구 등을 전시하면서 일본을 무혈로 제압하고 1854년에 굴욕적인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하여 개항을 시켰다. 1858년에는 다시 미일상호통상조약 체결에 굴욕적인 치외법권(영사재판권)과 관세권 및 최혜국 대우 내용이 들어갔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조약 등 다른 조약체결할 때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미국의 매슈 페리 제독은 1854년에 해안에서 일본인에게 서구의 미니어처 증기 기관차와 무기, 전화기, 시계, 화로, 서적, 농기구 등을 보여주고 개항을 길을 열었다.

일본은 그 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당시 열강의 공동정책인 「균점의 논리」가 적용되었다. 이로서 개화에 눈뜬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개화파가 막부(幕府)를 타도시키고 1868년부터 일본을 부흥시킨 메이지(明治)유신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서구열강과 수교한 후에 많은 인적 자원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유학을 보내고 정부가 지원하여 식민지 정책에 걸맞는 인맥을 양성했다. 문제는 서구의 식민정책을 익혀 조선을 위시한 아시아에 더 심하게 적용한 것이다.



19세기말은 열강이 식민지 정책을 위해 제국주의적인 군비경쟁을 극대화 시킨 시기였다. 증기선박의 고속함정과 무선전신의 발명은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에서 사용되는 무연화약과 기관총 및 강철대포가 출현하여 1880~1930년의 반세기(半世紀)는 소위 전함외교(戰艦外交)로 식민지를 획득하는 황금시대가 되었다.

미국의 25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1901-1909 재임)은 1895년에 해군장관일 때 ‘대백색 함대

(Great White Fleet)’를 이루었고, 다시 뉴욕주지사와 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태평양에 대하여 ‘미국의 미래는 유럽에 면한 대서양보다 중국에 면한 태평양에 입지를 차지하는데 좌우된다.’라고 하여 아시아에 대하여 팽창적이고 개입적인 정책을 선포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산업혁명의

(위) 1862년 최초로 일본의 영국 파견 사절 -1854년 미국과 수호에 이어 1858년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프러시아, 포르투갈과 맺은 수호통상조약에 의거 1862년에 38명의 유럽 파견 사절이 영국을 방문한 사진

(아래) 1854년에 미일수호조약에 의거 1858년에 최초의 일본사절단으로 미국 워싱턴 D.C. 조선소를 방문한 사진, 게이오 기주쿠대학을 설립한 메이지 유신을 세운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 諭吉)도 포함

꽃인 비행기와 자동차 및 잠수함을 처음으로 타 본 사람이다. 사실 19세기 전후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열강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자본이 남아도는 잉여시기로서 그 결과 제국주의식 식민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필연이 되었을 것이다.

■ 19세기말 이토 히로부미 등 유학파가 영국에 유학하여 익힌 식민정책과 산업혁명

이토 히로부미(1841-1909)는 1862년에 당시 세계 제일의 열강이 된 영국에 유학한 5명의 ‘장주 5걸’ 중의 한사람인데 런던대 화학과를 마쳤다. 그는 1901년에도 미국의 예일대 창립 200주년에 초청되어 명예법학박사를 받았다. 소위 조선이 개항도 하기전에 찬·영·유대를 쌓고 한일병합 이전부터 찬·미인맥을 형성해 나간 것이다.

그는 영국 유학시절에 해군시설과 공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식민정책에는 ‘천천히 잠식하다가 나라까지 빼앗는 19세기의 영국의 식민정책’을 익혔다. 영국은 인근 아일랜드를 800년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아일랜드 국어(國語)까지 빼앗았는데 이는 이토가 일제 강점기에 한글을 말살한 것과 같았다.

그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여 군사동맹을 맺고자 [영일동맹]을 위해 1902.1.30에 영국에 갔다. 이 동맹으로 “일본은 중국과 조선에서의 이익을, 영국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서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한쪽이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에는 영일 동맹국은 서로 엄정중립을 지키며, 한쪽이 2개국 이상과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이 협동 전투에 임한다.”는 전시에 대비한 포석을 미리 두었다.

이토는 서양열강에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도 피지배국에 대하여 겉으로는 국가 간의 평화 등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안중근의사도 이토가 말한 동양평화론이 일본의 이익과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 및 합리화하는 거짓 평화론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토가 주장한 제국주의는 영토확장에 열중하는 서구 열강의 식민정책을 그대로 카피했다. 그는 초대 일본 제국의 내각총리 대신부터 4번을, 초대 조선통감부의 통감을 하면서 조선과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이고 사후에 그를 잇던 일본제국은 후원국이던 미국까지 1941년에 침략하는 야욕을 키우게 했다.

■ 열강의 대열에 낀 일본의 침략 야욕과 정한론(征韓論)

19세기의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열강의 전열(戰列)에는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같이 일본도 근대화와 산업혁명을 후발로 성공시켜 진입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인근 국가를 식민지로 점령하는 시대였다. 사실 일본은 1854년에 미국 함대에 의하여 굴욕적인 개항을 당하고서 운 좋게 근대화에 일찍 눈을 떴다. 그리고 열강을 따라가기 위하여 인력을 파견하되 서구 열강의 무기산업과 공장시설을 단시일에 익히고 발전시켰다.

그 후 일본은 서구를 흉내 내어 인접의 조선, 중국, 필리핀, 대만, 오세아니아 군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식민지 획득에 열을 올렸다. 마침내 일본과 서구열강은 인류의 양심과 정의 및 인도주의를 무시한 채 아시아의 약소국을 독자적으로 때로는 「균점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침략하여 양육장식의 제국주의라는 잔치마당을 벌린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시기는 보수와 개화에 대한 외부의 거친 물결이 밀어 닥쳤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당파의 국론 분열로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절대절명의 근대화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열강의 침공을 견뎌내기 위해 누란의 위기에도 정권실세인 흥선대원군은 개항쪽보다 봉건쇄국주의를 택했다. 조선이 근대화를 스스로 막아 외부 정보의 부족으로 오히려 허물어져가는 청나라에 대하여 의존하는 사대주의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패하자 드

일본이 1854년 개항후 8년만인 1862년에 최초의 외국유학생

- 런던대를 들어간 일본의 유학생 5명,
-상단은 오른쪽이, 이토 히로부미 초대총리, 조폐국국장, 하단은 오른쪽이, 법제국 장관, 초대 외무대신 가운데 철도국 장관으로 일했다.

디어 정치적인 종속관계는 없어졌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건국한 중화민국의 장제스 등은 일제에 같이 대항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었다. 중국측의 공산당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조선의 용대는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었다.

또한 조선이 개항을 당하면서 일본제국은 조선의 쇠약해진 국력을 여실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1868년부터 1872년까지 여러 번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조선을 신하(朝臣)로 여기는 내용의 국서(國書)인 서계(書契)를 보낸 것이다. 이때는 대원군 섭정(1863~1873 10년간)시기였는데 국서 반환의 문제로 일본과는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은 즉각 이를 빌미로 정한론(征韓論)을 여지없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드디어 1873년에 청일전쟁에 승리하여 <청일수호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의 화전(和戰)권리에 청나라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조선에 대하여 포석을 두었다.

일본은 또한 일찍 서구에 다녀온 유학과 인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외교력으로 “한국은 스스로 통치가 불가능한 나라로 칭하며 서구열강에 그릇된 홍보”를 하면서 악선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하여 주변 열강이던 미국, 러시아, 영국 등이 한반도에 대하여 자국 이익을 위한 비밀협상 등에 일본의 야욕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자주성은 무참히 유린당했다. 더욱이 대한제국은 바람직한 자주적 개화정책을 하지 못하고 대신 열강의 강요로 국권이 침해당하는 비자주적 개화정책을 하게된 것이다.

또한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국망(國亡)이 좌우되는 중요한 정보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1904년 8월에 조선정부에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한일의정서> 체결 위협 때에도 고종은 친일쪽에 서있는 미국정부를 모른채 거중 조정을 요청했으나 역시 묵살당했다. 또한 1905년 8월에 미국의 항구도시인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자 고종은 미국정부에게 또다시 특사를 보내되 포츠머스 회담에 조선 대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3. 열강의 힘에 의한 조선과 대한제국

■ 친일의 시어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관계

루즈벨트는 1901~1909년까지 26대 미국 대통령이였다. 이 시기는 대한제국에서 고종황제의 집권시기이었고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상 일본의 야욕에 맞추어 대한제국의 국권을 지배하도록 승인한 비극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아래 같은 대한제국의 존망이 걸린 큰 사건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 1904.2.23에 한일의정서, ▶ 1905.11.17에 을사늑약, ▶ 1905.11.22에 조선통감부 설치, ▶ 1907.6.15에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파견 ▶ 1907.7.20에 고종이 헤이그 밀사파견으로 일본이 강제로 퇴위시킴, ▶ 1909.10.26에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 ▶ 1910.8.22에 한일병합 조약으로 국권이 피탈되었다.



■ 1905.7월, 마일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으로 국권 상실

당시 미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에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었다. 고종을 비롯한 조선의 관료들은 조선

의 독립을 위해 미국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899~1902년 동안에 총독으로 필리핀을 지배하였다. 1905.7.29에는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H. 태프트와 일본제국의 외상인 가쓰라 다로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The Katsura-T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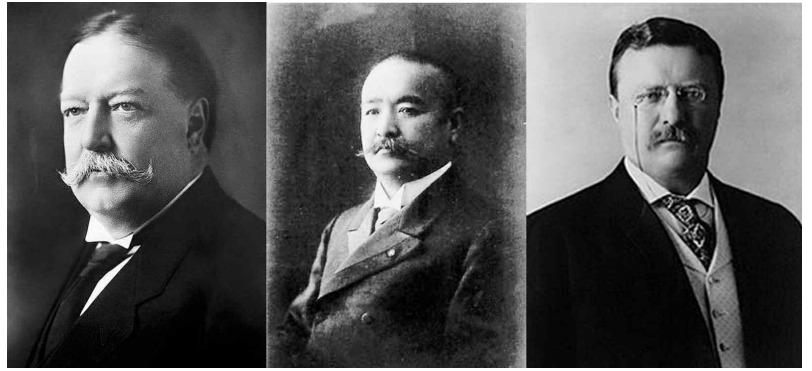
1904.2.23. ‘한일의정서’ 체결의 기념촬영을 가진 이토 히루부미와 강제 조인케한 원흉들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으로 ‘한일의정서’를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옛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한일간에 무효가 되었다

Agreement)’을 통해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국권상실의 비극을 당했고 한미 양국관계와 한국의 운명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극비(極祕)의 밀약은 1924년에 미국의 역사가인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 1882-1949)에 의하여 루즈벨트 문서연구에서 비로소 밝혀졌다. 당시 이승만의 전기작가인 로버트 올리버는 밀약이 “한국의 사망증명서에 날인(to seal Korea’s death warrant)하는 행위였다.”고 표현했다.

이는 1882년에 미국과 체결한 한미수호조약에 명시된 ‘우호적 중재’라는 계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정이었다. 이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미국은 당장 한국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에 여실히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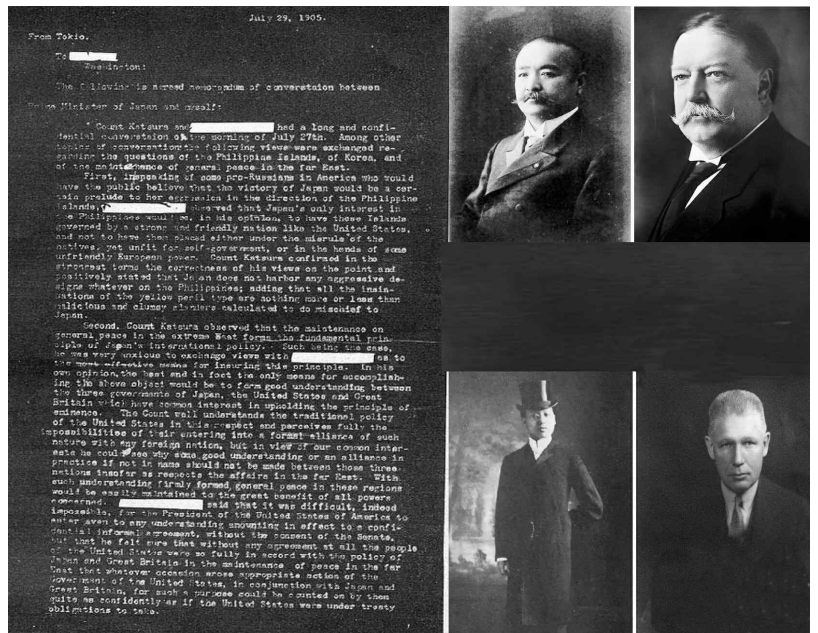
일본의 가쓰라 다로는 1870-1873년에 독일에 유학하여 국방과학을 수학했다. 1896년에 타이완 총독을 맡았고, 1898년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 육군 대신으로 활동하였으며 1901, 1908, 1912년부터 3번 내각총리를 맡았다.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의 주인공

왼쪽부터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H. 태프트(미국 27대 대통령이 됨), 일본제국의 외상 가쓰라 다로,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26대 대통령

-과거 태프트는 미국정부의 필리핀 총독, 다로는 일본제국의 대만 총독으로 일했던 공통점이 있었다.



(하단 오른쪽) 1924년 극비의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밝혀 낸 미국의 역사가인 타일러 데넷(Tyler Dennett 1882-1949)의 사진

(하단 왼쪽) 이승만이 1905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면서 입은 예복

태프트는 1901-1904년 동안에 초대 필리핀 총독을 맡았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후임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열강의 각축장이던 조선의 중요한 시기에 이를 헤아리지 못한 고종과 대신들은 미국 일본과의 외교에 좌우되어 망국에 이르는 헛걸음을 하게 되었다.

■ 1905. 9월 포츠머스 조약 등으로 열강에 의해 사실상 일본의 속국으로 재확인

먼저 일본은 군사를 앞세워 조선에 <한일의정서>(1904.2)를 체결하면서 장차 조선영토 내에서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조선이 일본편을 들도록 유도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1904.2~1905.9)에서 육전과 해전에서 모두 이겼다. 그러나 양국에 6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각각 국내사정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의 외상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855-1911)는 같은 대학 동창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강화화담을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게 된다. 이때부터 조선의 운명은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열강의 외세에 의하여 결정되어 버렸다.

주타로는 미국에 유학하여 1877년에 하버드대학교 법학부를 나왔고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1858-1919)도 1880년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서로 동창이었다. 주타로는 과거 체결된 1854년 미일수호조약의 불평등조약을 해소코자 조약개정의 매달려 1911년에는 미일통상항해조약을 조인하고



(위) 1905년 9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러일전쟁이 끝난 후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하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회담 결과는 조선의 식민지화였다. 이는 1905.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루즈벨트가 전적으로 동의한지 불과 한달후의 일이었다. (죽음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만화)

(아래) 1905.8.4. 이승만은 고종의 밀사로 루즈벨트를 만났으나 닷새 전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조인되어 헛걸음이 되었다.(미국의 신문보도)

관세자주권을 미국으로부터 회복시켰다. 이와 똑같은 사례로서 1876년에 강제로 맺은 한일수호조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고종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일본으로부터 즉각 거부당했다. 또한 주타로는 러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병합하는데 에도 관여하여 일관된 일본의 대륙정책을 진행시켰던 인물이다.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은 과거 일본을 개항시켜 식민지의 맹주에 있었고 평소 백악관에 일본의 스모선수를 더러 초대하여 관람하는 등 친일적이었다. 또한 루즈벨



1905.9월 포츠머스 회담 장면,

일본 제국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재요청을 하고 러시아 제국 대표들과 하는 장면, 사진은 일본의 외상 고무라 주타로

트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했다. 루즈벨트가 1900년 부통령 재직 시 당시 워싱턴의 주재 독일대사인 슈테른베르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일본은 러시아를 저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 일본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었다.

포츠머스 비밀회담의 결과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미. 일. 러 3국과 독일까지 포함하여 4대 강국이 승인하여 버린 것이 되었다. 단지 러시아가 조건을 달았으나 이에 대하여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도 승인만 득하면 점령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조약으로 일본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러시아로부터도 대한제국을 일제가 식민지로 속국화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확실히 획득한 것이 되었다.

더욱이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전쟁의 승리를 확인시킨 포츠머스 조약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단지한 달 전인 1905년 7월에 맺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상의 재확인과정인 것이다. 그 내용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일본은 인정하되, 일본의 한국 점령을 미국이 인정한다. 그리고 미국·영국·일본은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 이었다. 또한 포츠머스 강화회담 와중에도 1905년 8월 12일에

한국문제가 포함된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협상에서 일본과 미국, 러시아 및 영국 4개국은 일본의 한국지배를 교차로 확인한 것이다.

앞에서 일본이 1905년 이후 대한제국에 강요할 수 있는 힘이란 것은 위와 같이 마일의 1905년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과 1905년 마일러의 포츠머스 조약 및 훨씬 이전인 1902년 영·일의 동맹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을 조선에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했다. 루즈벨트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11월 8일에 다카히라 일본 공사가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주한미국 공사관의 철수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미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1월 24일 열강 중 제일먼저 미국공사관을 조선에서 철수하고 외교를 단절하므로서 일본 외상에게 우의(友誼)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1907년에도 러일간에 다시 비밀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 강제속국화에 대한 권익’을 일본은 재차 러시아로부터 확약을 받았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적극 찬성했다.

■ 1900년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과 임시정부의 승인문제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26년간 존립하면서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나 결정적인 기회에 연합국 열강은 임정의 존재와 승인을 외면하여 좌절되었다. 한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공식승인을 받고 군사적 지원을 얻는 일은 연합국의 일원이 되는 길이었다. 또한 일본의 패전에 기여하고 독립된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당시 중국 국민정부, 미국, 영국 및 소련의 연합국은 임정 내재적으로 취약성과 분파분쟁 및 국내와 연락 부재 등으로 거부했다. 열강은 내외적으로는 아시아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반식민지 상태에 놓여 호의적이었다. 영국은 그들이 가진 식민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한국의 독립과 임정 승인에 부정적이었다. 러시아(소련)는 친미와 친중 성향의 임정이 될 경우에 대하여 거부적인 태도였다. 2차 대전 이후에는 한국에 대하여 미국은 열강의 합의하에 신탁통치를 제안하고 열강의 발언을 차단하고 우월적인 발언권을 확보하려 했다. 따라서 임정 내재적인 취약보다 국제적인 요인 즉 열강들의 상이

한 인식과 이해관계가 작용했다.

미국의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1901~1909 재임)은 공화당 소속으로 평소에 미국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국제문제에 대하여도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아시아에서 대한제국에 대하여는 국익을 위하여 친일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27대 윌리엄 태프트(1909~1913 재임) 대통령도 공화당 소속으로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상의 당사자로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1913~1921 재임)은 민주당 소속으로 그의 외교 정책은 19세기까지 국제 정치를 지배하던 "힘의 균형" 원리에 대립되는 도덕주의와 이상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학자출신으로 1918년 국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민족자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은 약소국이 독립하는데 힘을 실어 주었고 이 때 대한제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발족되는 동인이 되었다.

이승만 박사는 그와 프린스턴 대학교의 동창 및 사제지간으로 일제하에 주로 서방에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중국에서 발족한 임시정부도 이러한 두 사람의 친인관계를 고려하여 국무령과 대통령으로 리더 자리를 지원한 것이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1944년 8.15해방 한해 전까지 이승만 임시정부가 수없이 미국에게 임시정부를 승인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더구나 1941.12.7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후에 미·일간에 전쟁을 하고 있었으나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되기 힘든 일이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도 미국·영국은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도 임시정부를 승인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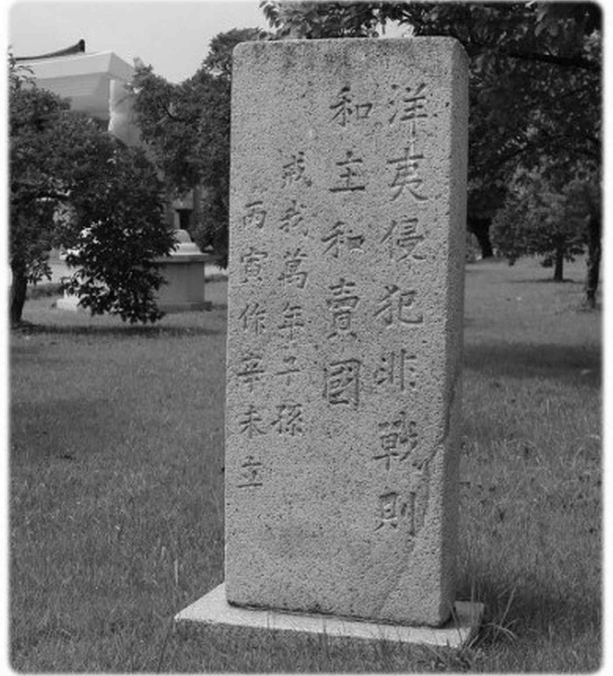
- ① 조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통일이 되지 않은 점,
- ② 아시아 지역의 다른 식민지에 영향을 줄 우려(아시아에서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영국, 프랑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문제)
- ③ 소련이 시베리아의 조선인 부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정부를 만들 우려가 있는 점이다. 이는 열강의 이해문제로 좌우된 것이었다.

단, 미국 정부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1944년에 미국 의회를 통하여 임정의 승인을 얻었다. 한편 1944년에는 소련, 1945년에 프랑스의 승인을 받았다.

4.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근대화

■ 국제상황에 비추어 비현실적인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왕조가 계속되던 조선에서는 서구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과 식민지 정책으로 차츰 열강이 몰려오는데 대하여 여러 대응방법이 나타났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조선왕조는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을 제외하고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이어왔다. 1863년 흥선대원군(1873까지 섭정)의 집권으로 상당히 개혁적인 일을 추진하였으나 청나라를 제외하고는 쇄국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일체 서구와 접촉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 닫은 것은 국제상황에 설득력이 없었고 비현실적 노선이었다. 또한 서구열강과 전쟁에서 패배한 청국이 조선의 안전과 독립을 확보해 주겠다는 발상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개항시에 조선의 쇄국일변도와 달리 전통적 사고에 집착하지 않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경주박물관 소장

-종로 네거리를 위시한 전국 교통 요충지 200여 개소에 세운 비석(碑石)

내용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굴욕적으로 개항당한지 불과 22년 후인 1876년에 조선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일본은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 즉 한일수호조약을 강요하게 된다. 이 시기는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0년의 장기 집권에서 물러난 1873년 이후로 고종때 이었지만 조선은 그 이전부터 열강으로부터 밀려오는 개화와 개항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망국의 길로 이어지는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적응하지 못한데 있었다. 505년의 조선왕조(1392-1897), 13년의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 36년의 일제식민지(1910-1945) 시대까지 산업사회에서 앞장선 서구열강이 활개를 치고 전 세계에 걸쳐 약소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려던 시대였다. 따라서 당시의 국제정치 환경은 약소국가와 민족에게 무력을 앞세운 열강으로 흥망과 존폐라는 엄청난 시련과 변화를 누었다.

■ 1905년 고종은 감옥에서 이승만을 석방시켜 밀사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파견

이승만(1875-1965)은 20세인 1895.11.29 명성황후가 살해되자 원수를 갚는 계획(춘생문 사건)이 사전 탄로나서 3개월간 일본의 체포를 피해 피신했다. 러시아 등 외세를 배격하는 만민공동회에 이승만은 가담하였으나 고종이 이를 해체하자 피신했다. 그는 협회의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전단지 내용 중 '광무황제는 나이가 많아서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 주어야 한다.'라고 쓰인 문구가 문제가 되어 요시찰 대상이 되었다., 1899년 이승만은 박영효 일파의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04년 8월 종신형을 선고받아 한성감옥에 재수감되었다.



(위) 1904 11월 미국에 고종의 밀사로 가기 전에 찍은 이승만의 가족사진

왼쪽부터 첫째부인 박승선, 아버지 이경성, 모자를 쓴 친아들 이봉수(1899-1906, 미국 필라델피아 워싱턴D.C에서 7세로 사망), 첫째부인은 한국에 남았고 이승만이 미국에 갔을 때 다른사람과 동거하여 이승만과는 이혼

(아래) 1904년 한성감옥에서 사진 (왼쪽에서 3번째가 죄수 이승만이고 앞의 어린이는 5세로 면회 온 아들 이봉수)

이승만은 민영환의 권의로 감옥에서 석방되고 1905년에 고종의 밀사가 되어 미국으로 향했다. 당시 국무장관인 윌리엄 태프트와 접촉하고, 그의 소개장으로 뉴욕의 별장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 이때는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맺어진지 불과 닷새 후이어서 이승만이 가져온 고종의 거중 조정 문서에 대하여 대통령은 ‘정식 외교창구를 통해 제출하시오’ 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회피했다.

당시 이승만은 주미한국 공사관인 김윤정을 만나 밀서의 정식 전달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역할을 거절했다. 공사는 한일병합 이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한일병합의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친일 관료직과 중추원 참의직까지 보직을 받았으며 현재 친일명부에 올라 있다.

■ 근대화 추진에 조선내부의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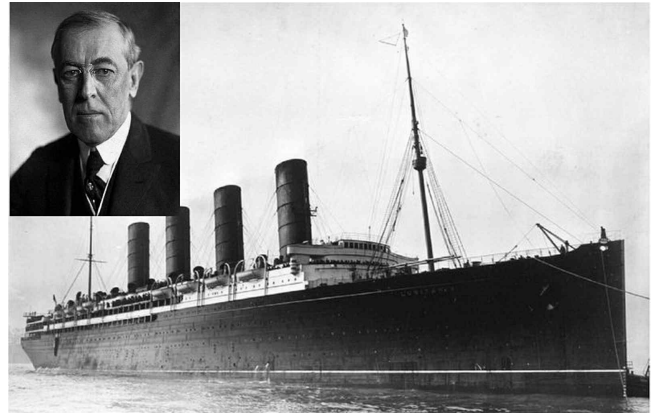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와 반대로 조선은 서구의 충격에 직면하여 대내적인 개혁에 실패했다. 국내에서는 이 기간에 열강의 힘에 영향으로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친미파로 국론이 분열되고 근대화가 주저 앉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엄청난 국론분열은 국력소진으로 망국의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 열강의 반식민지화(半殖民地化)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을 향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비토당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임시정부 내에서도 요원들의 분열된 상황 때문이었다고 한다.

5. 미국의 세계주의 정책과 미일의 밀월관계

■ 미국이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세계주의로 전환과 식민정책

미서전쟁(美西戰爭)은 1898년 4월부터 8월까지 필리핀에서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이었다. 미국이 이기자 1919년 파리강화조약에 의거 필리핀을 1899년부터 인수하여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때 미국의 필리핀 통치정책은 보다 자율적으로 필리핀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미국은 1916년에 필리핀은 1945년까지 독립시키기로 결의했다. 미국의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으로 윌

리엄 H. 태프트가 2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국방장관 시절에 마일의 <가쓰라-태프트 비밀 협약>(1905.7.29)을 맺은 장본인이며, 1901-1904년의 4년간 미국의 필리핀 총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904-1908년은 육군 장관이 되었다가 시어도어 후임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1915.5.7. 세계 최대의 영국 여객선 루시태니아호와 선전포고를 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뉴욕항을 떠나 영국으로 향해하던 루시태니아호는 독일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 1,191명중 미국인은 128명이 사망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1917.12.6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여 고립주의를 버리고 1차 대전에 참가하여 전쟁을 승리로 끝냈다.

미국은 1861-1865년 4년간 남북전쟁을 마치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크게 부흥했다. 국부인 초대 워싱턴 대통령 이후의 대 유럽정책은 먼로주의로서 유럽 대륙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고립주의(孤立主義) 정책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帝國主義)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 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이 발발한 후 독일잠수함이 당시 세계최대의 영국 여객선 루스태니아호가 뉴욕을 떠나 아일랜드 해안에서 공격을 하여 승객 1,191명중 128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1913-1921 재임)은 1917.12.6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로 개입하면서 유럽에 대하여 먼로주의를 버리고 최초로 세계주의(世界主義)정책으로 바꾸었다. 일본도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여하여 승전후에 오세아니아 군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 1900년대 친일정책에서 차츰 ABCD 4개국 봉쇄망으로 일본을 고립정책

당시 미국의 1900년대 초반 상황은 자력으로는 중국 대륙에 진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먼저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 즉 일본을 이용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미국은 드디어 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군사력이 강성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이 볼 때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시아에서 맹주로 군림하려는 우려가 보였다. 또한 중국이 반식민

상태지만 일본이 중국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수수방관을 할 수가 없어 새 전략을 개발했다. 즉 A(America 미국) B(Briton 영국) C(China 중국) D(Dutch 네덜란드) 4개국의 ‘ABCD 봉쇄망(ABCD Line)’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막고자 했다. 이는 전쟁물자인 석유, 고무, 철광석, 식량 등 수출금지라는 경제제재와 함께 일본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다. 드디어 미국은 일본의 뒤를 봐주던 관계와 결별하고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전쟁체제가 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차츰 격리 당하자 드디어 미국을 향해 공격 없이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식민지 장악이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드디어 일본은 1941년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미국을 향하여 전쟁을 감행했다.

결국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하여 오늘날과 같이 일본과 한반도 38도선 이남지역, 필리핀, 중국 땅 바로 앞의 대만에 까지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1900년대 있었던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지원과 친일정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보 전진(二步 前進)을 위한 일보 후퇴(一步 後退)로 분석되고 있다.

6. 110여년 전과 오늘의 국제환경은 유사(類似)

■ 오늘날 한반도 주위와 110여 년 전의 국제환경 비교

앞에서와 같이 과거 1905년 을사조약부터 110년이 지난 오늘날의 동 아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1946년에 평화헌법을 제정한 이래 70년 만에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않는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원칙을 깨고 있다. 드디어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추진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아베총리가 집요하게 추진하는 헌법9조 개정의 목적은 ‘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나고’ 최근 중국과 거론되는 센카쿠 열도문제에서 미일 안보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보법 성립에 대하여 일본의 민족단체들은 1905,7,28에 도쿄에서 미국과 극비로 맺은 ‘제2의 가쓰라-태

프트 밀약(Taft-Katsura Secret Agreement)’ 으로 간주하고, 동북아가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러시아의 과거 냉전체제로 환원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이란 군사대국화가 되는 문제로서 실로 우려되는 일이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이어지고 따라서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 이는 향후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최근 독도 문제에서도 자체적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사실적으로 영토침략에 준하는 망발을 정치권에서 연거푸 하고 있다. 중국도 한·중간에 증대된 무역거래 비중을 의식하여 종전에 없던 심한 발언을 일삼고 있으며 군사문제에 까지 내정간섭의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무력침공에 대비키 위한 최신 무력설비로 증강하는데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6자회담 당사자중 한·미·일 3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UN에서 대북한 경제제재의 합의에 대하여 차츰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의 국방 및 경제분야의 경쟁은 과거와 다름없으며 다자간 상호협상이나 비밀협상의 우려에 대하여 서로간에 불신의 시선을 지니고 있게 되었다.

7. 일제 만행으로 새로 밝혀진 진실

아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멸망과 회복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을 적어본다. 공통적인 사항은 서구의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는 약소 식민지가 필연적으로 열강에 의해서 강점되는 시기였다. 근대화의 과정은 자주적 근대화와 열강에 의한 피동적인 근대화에서 전자의 과정을 추진하지 않은 이상 후자의 과정으로 식민지배를 피하기 어려웠다. 일제는 강점기간에 조선의 역사관과 국민의 인식을 퇴행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식민사관(植民史觀)을 심어 나갔다. 혹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식민사관과 식민지 근대화론(殖民地近代化論) 및 민족사관(民族史觀)의 해석에서 다른 방향으로 왜곡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인식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대적으로 항상 불변일 수는 없다.

■ 고종의 독살

일제는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를 강요했고 여태까지 의문의 죽음도 함구한 채 독살설로만 미궁에 남았다. 그러나 2009년에 일제의 고위관리가 독살(毒殺) 지시를 한 사실이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1853~1948)의 일기 문서가 발견되어 진실이 드디어 판명되었다. 일기를 쓴 유자부로는 1919년 당시 일본 궁내성(宮内省)의 제실(帝室) 회계심사국 장관이었다.

독살 배후에는 데라우치와 하세가와 두 총독이 있었다. 이유는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여 독립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2009.2.29.]

■ 유관순열사의 타살

유관순 열사의 죽음도 여태까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의 고문으로 짐작되었으나 서류상 분명히 타살(打殺)로 판명되었다. 이는 2003년 6월 일본 도쿄(東京) 주일 한국대사관 서고에서 발견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로 밝혀졌다.

[한국메일뉴스 2013.11월]



(위) 고종 독살의 구체적 정보를 언급한 '구라토미 유자부로 일기'의 1919년 10월 30일 부분,

(아래 왼쪽) 유관순열사의 독살 서류, (오른쪽) 뫼텔주교의 일기와 아카이시 장군 및 뫼텔주교의 사진

당시 프랑스 천주교 외방전교회 소

속의 뫼텔 주교(1854-1933)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항일 민족운동과는 거리를 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민조약'(1899년)과 '교민화의협정'(1901년), '선교조약'(1904년) 등을 통해 신앙과 선교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치와 종교를 떼어놓는 정교분리(政教分離)에 합의했지만 이를 내세워 향촌사회와 대립하고 때로 치외법권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임명

기간(1890-1933)의 43년간에 걸쳐 프랑스어로 일기를 기록했다.

일기에 나타났듯이 1905년의 <105인 사건>도 비밀결사대인 신민회의 내용을 안명근(안중근의 동생)이 빌렘신부에게 전한 것을 다시 뫼텔주교로 전해지고, 다시 일제의 헌병대장 아카이시(明石元二郎) 소장에게 제보(提報)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제보로 명동성당은 소송에서 패한 진입로 문제도 해결보았다고 적고 있다. (1911.1.11.자 일기) [가톨릭프레스 2015.11.2.]

앞에서와 같이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도 19년이 지나 밝혀졌다. 또한 많은 열강의 비밀협상과 막후의 거래가 세월이 갈수록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 뫼텔주교가 본 안중근의사의 의거와 고종에 대한 굴절된 시각

1998년에 한국천주교에서 번역 발간한 <뫼텔 주교의 43년간 프랑스어판 일기>에 따르면 그는 한일 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이 반포되기 이미 3일 전에 병합 정보를 접했다고 하였다. 또한 안중근의사의 의거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에 대한 시각이 적혀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일제에 협조하는 주교 뿐만 아니라 당시 친일의 미국과 다른 열강들이 지닌 시각이었다. 이는 일제가 조선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의 외교사절과 열강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편향적인 오도(誤導)와 역사굴절(歷史屈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종에 대한 무능 탓으로 한일병합이 이루어 졌다고 적고 있다. 또한 안중근의사의 의거를 살인행위와 증오를 일으키는 일로 보았다.

<안중근의사의 의거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

1909년 10월 26일 드망즈 신부가, 한 한국인에 의해 이토(伊藤) 공이 암살되었다는 소문이 장안에 나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저녁 5시경에 왔다. ... 이토 「뫼텔 주교 공의 이번 암살은 공공의 불행으로 증오(憎惡)를 일으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기 4권」 그러한 모습은 일본인들이나 몇몇 친일파 한국인들에게서만 보일 뿐이고 일반 413p. 민중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뿐더러 그런 감정이 아주 전반적이다

<한일병합과 고종에 대한 시각>

「뫼텔 주교

1910년 8월 26일 반 비르브리트 씨 덕분에 한국이 합병되고 그 조약이 29일에 일 기 4 권」
 공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협상에서 전 황제와 현 황 482p.
 제[고종과 순종]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 천주님은 이 슬픈 한 일 병 합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1910.8.29)

오늘날 과거의 역사는 차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역사의 정설도 바뀌어 나간다, 5천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체제에서 전 국민이 염원한 독립운동은 사실 몇 사람이 노력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 열강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약육상식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에서 살아남아야 나라를 유지하고 결국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망국의 어려움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온갖 지혜를 다하여 부정적인 열강을 인식시키고 몸부림칠 때 광복의 역사는 다시 찾아왔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식민지로 탈취하기 위해 저지른 일본제국

일본 제국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동이 되어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서구 산업혁명의 과정을 늦게 접하고 따라서 근대화에 뒤쳐진 모습을 최대한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권을 탈취하였으나 아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위와 엄청난 모략을 자행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앞으로 그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전세계 자유경제체제의 율타리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여야 하겠다.

● 이는 1905년 고종황제 시기에 **을사보호조약 체결시에도 원천무효임**이 아래같이 밝혀졌다.

①자유의사가 무시된 강권으로, ②이토가 일본공사관 문서과장이었던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를 시켜 한국측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날인하여 위조된 문서로 판명 ③을사늑약의 양측 서명자 중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은 고종황제의 위임이 없었고 일본측 공사인 하야시는 일본왕의 위임이 없었다. 오히려 이토가 특명전권대사였다. ④조약의 비준권자인 고종은 승인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인 고문인 헐버트에게도 무효임을 미국정부에 비준거부를 알리도록 했다. ⑤일본이 제시한 조약의 추가변경에 절차상 보고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바뀌었다. ⑥1895년 4월 체결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에 청국은 한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확인한다는 국제적인 공약을 파기 ▶1902년 1월 <영일동맹>에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하였으나 이를 파기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에 조선은 자주적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및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보증한다를 파기 ⑦ 을사늑약에 민영환, 조병세 등 순국으로 항의, 4년간 의열투쟁으로 저항하여 승복하지 않아 무효 ⑧ 1965.6.22. <한일 기본관계조약>으로 1910.8.22. 을사늑약조인. 및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원천무효로 주장 (일본은 1951.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결과 지금은 무효로 주장)

이와같이 일본은 조약시 도장을 훔치거나, 대리인의 위임도 없이, 비준권자의 승인도 없이, 열강의 다른 조약에도 명시된 것을 무시하는 등 공노할 외교를 저질렀다.

- 명성황후의 시해 및 고종의 죽음이 독살로 판명
- 유관순열사의 고문으로 사망이 타살로 판명
- 안중근의사의 유해지 은닉과 동양평화론 원본 은닉

앞에서 명시한 이상과 같은 사실이 새로 판명된 것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그들은 열강의 힘에 의하여 무력으로 식민지화한 것보다 대한제국의 나라와 국민을 집단 학살한 것임에 틀림없다. 황제를 독살하고 국모를 함부로 죽이고도 해당 범인을 재판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여 풀어주었으니 이는 살인을 두 번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본은 아직도 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인지 하는 의혹을 풀 수 없다. 앞으로 이 외에도 독립운동의 역사연구가 진전된다면 비밀과 그들의 정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를 본다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베를린 곳곳에선 나치 범죄와 독일의 2차대전 책임을 되새겨 기억하려는 기념관과 추모 시설들이 ‘우리의 잘못과 책임을 잊지 말자’ 고

맹세하고 있다. 독일 지도자들도 다시 한번 과거의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와 같은 입장의 중국과 같이 한중간에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거칠게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독일과 다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누가 가장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독립운동가들의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8.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이 던진 교훈

■ 독립운동사를 통한 새로운 역사인식

즉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거론되는 사람은 고종황제와 주위의 충신과 역적들이다. 특히 고종의 평가까지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 측이 허위로 만든 식민사관이라는 역사왜곡으로 교묘한 책략에 휩싸여 있었다. 아직도 대한제국이 고종황제의 무능 탓으로만 국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최근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역사학자들의 꾸준한 탐구로 1919.2.1에 독살(毒殺)의 만행을 자행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후를 같이 독살하고 시해한 것으로 세계의 근대사에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식민지 침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알게 한다.

예를 들면 안중근의사의 옥중 저서인 안응칠(安應七) 소회(所懷)와 동양평화론(東洋平和論)의 정본을 공개하지 않고 일본인이 쓴 필사본만 흘리고 있어 안의사가 쓴 고매한 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안의사의 유해를 묻은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문명국으로서 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로서 과거의 역사를 사과하지 않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한, 1888년에 일본인에 의해 내용이 처음 공개된 고구려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과 직결시키기 위해 “倭”는 “後”로, “海”는 “每”로 조작하는 등의 일로 일본 학자들도 이를 부인하는 역사적인 왜곡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와 같은 고종의 자문역할(1895~1907)을 담당했던 미국인도 '한국의 역사'와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의 저서를 통하여 고종의 정치

능력과 독립정신 및 인격을 밝혀고 있다.

열강끼리의 비밀협상으로 대한제국이 망국이라는 비극으로 끝난 사실도 차츰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모름지기 역사해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차츰 새로운 각도와 증거로서 진실한 역사를 다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과거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부는 토인비가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어 나가야’ 가치가 있고 다시 반복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국가의 독립은 좌우하는 엄연한 진실은 오로지 경제력과 국방력이라는 국력의 신장에 있다.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냉정히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 망국과 흥국의 근현대사에 독립운동의 역사는 귀중한 미래의 교훈

우리는 앞에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현재까지 근현대사 110여 년간을 ▶19세기말의 조선시대,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0) 13년, ▶일제식민지(1910-1945) 36년간으로 나누어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살펴 보았다.

우리 민족은 망국(亡國)과 흥국(興國)이라는 상반된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1910.8.22에 조인된 한일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부터 1945년에 해방되어 독립을 이루기까지 36년간 온 국민은 독립운동과 국권회복에 갇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이루고 대한민국으로 출발한 후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의 전 분야에서 눈부신 역사를 이룩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뛰어난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제무대에 다시 우뚝 선 것이다.

일제 식민지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정신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는 해방 후 경제력과 군사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정신적인 단결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를 통해 재삼 국제적 환경변화에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실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모름지기 세계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앞으로 주변국에 휘둘리는 전철이 결코 없어

야 한다. 즉 국제정치 무대에서 엑스트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역사는 과거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학자 토인비도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데 있다" 라고 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국제정치의 주연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망국에서 흥국의 110년사를 사이에 두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새로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다.

9. 대한독립과 건국의 서광

■ 1918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의 원칙」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팽창 경쟁과정에서 제국주의 집단체제간에 충돌로 일어났다.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약소국을 점령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강대국들은 그 점령을 상호 묵인해주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편, 강대국들 간의 충돌에 대비하여 강대국들은 이해관계가 근접한 국가 간에 집단체제(협상국, 동맹국)를 형성하여 상대세력을 위협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결국 집단 간의 전쟁인 세계대전으로 폭발한 것이다.

우드로 윌슨 미국대통령이 1918년 미국 국회의 연두교서에서 밝힌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1919.1.18. 파리강화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되었다. 즉 '식민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식민지 국가가 독립을 주장하는 기본권이 되었다.

대한제국도 1919년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1919년 4.13에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자극받아 중국은 5.4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도 이때의 영향으로 1921년에 자치독립을 하게 된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오늘날까지 국제법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으나 그 후 강대국의 군사적 힘에는 발휘하지 못하

는 사례가 많았다.

■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의 효과

일본은 후발형, 근거리형 제국주의 체제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려 했다. 그리고 영국이 아일랜드에 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려는 극단적 동화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1919.3.1운동 직후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의 방해공작과 여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해득실과 무관심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활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요구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3.1운동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적 의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은 한국인들 스스로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조국내 초기에 체류하던 미국 선교사들의 시선은 미국정부처럼 조선의 멸망을 당연시하고 일본에게 긍정적이었으나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차츰 일본의 잔인한 진압이 미국인 선교사들과 미국 지식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3.1운동을 계기로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근대적인 국가 수립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은 독립을 향한 마음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은 일제가 금전적인 예속을 목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빌려준 차관을 갚고자 추진한 일로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금, 가락지 등의 모으기 운동처럼 항일의식을 확산시켰다. 일제는 이러한 돈이 항일운동에 운용될 것을 우려하여 금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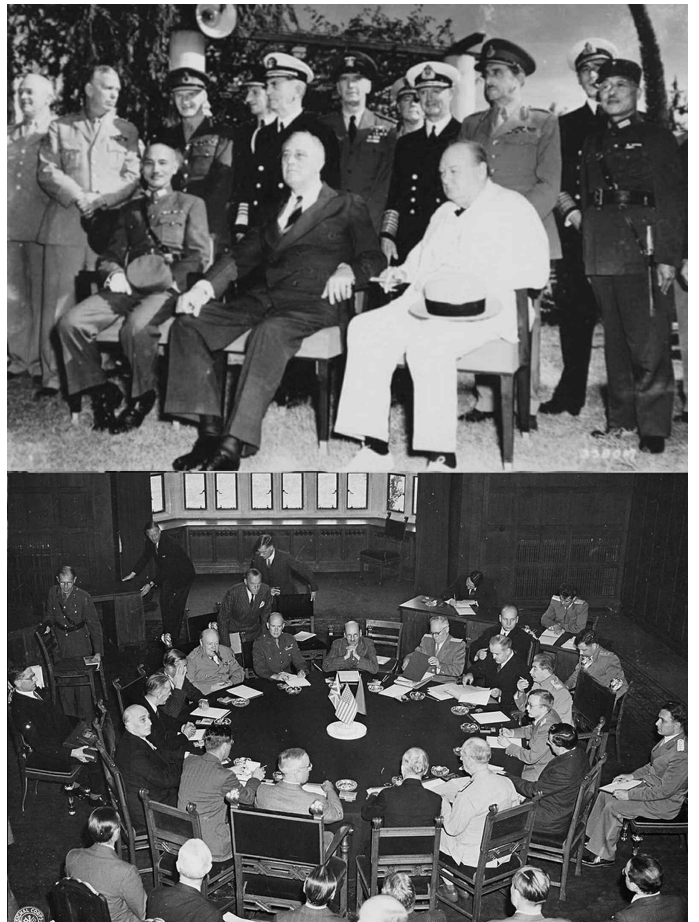
3.1운동과 임정활동은 세계적으로 독립의 결의를 알려 각국의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파하였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 승전국은 이런 한국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3·1 운동을 계기로 강경책 내지는 군사,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를

하던 조선총독부는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된다. 3·1운동은 중국의 5·4 운동에 참여한 일부 지식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 1941년 대서양헌장으로 일본은 진주만 공격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은 1941년 8월 루스벨트와 윈스턴 처칠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여 승리할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구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국제정치’와 한국현대사의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중 핵심은 미국과 영국은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여 19세기형 제국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반면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기전에 1941.12.7 진주만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는 전후 식민지의 해방을 분명히 선언한 대서양헌장에 따른 미국과는 더 이상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1943.11월 카이로 회담과 1945.7월 포스담 회담

1943.11월 카이로 회담, 1945.7월 포스담회담

1943.11.27. 미·영·중의 3개 연합국인 루스

벨트·처칠·장제스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하여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을 낳았다. 회담결과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해야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 독립국가로 승인

할 결의를 하였고 이는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1941년 대서양헌장(大西洋憲章, Atlantic Charter)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 데에는 이승만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45.7.26 포츠담 선언 (Potsdam Declaration)은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발표한 선언이다.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의 수상 처칠,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가 회담에 참여하여 선언에 서명하였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참전과 동시에 이 선언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이 선언을 묵살하였고 이에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소련도 8월 8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참전하여 뒤늦게 전승국에 들었다. 일본은 결국 6일후인 8.15일에 항복을 했다. 당초 카이로 회담의 재확인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미·소가 회담 과정에서 밀약을 통해 38선을 남북으로 가르는 군사 점령 분할선을 정했다는 ‘포츠담 밀약설’이 최근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소련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여겼다. 냉전과 한반도 분단의 씨앗은 포츠담에서 이미 뿌려지게 된 것이다.

■ 1945년 해방 후 국가발전체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세계 2차 대전 후 국제정치 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시장경제체제(市場經濟體制)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 개방 및 경쟁의 원리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세계대전 이후에 구체화된 것이다.

과거 1945년 해방 후에도 우리 민족이 미국과 소련 중 누구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력에서 앞서 있었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형 개방노선을 추구했다. 이러한 경제개발 노선은 한국이 대서양헌장에 규정된 자유무역을 원리로 하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문명권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한제국은 일제의 폭력적 억압 체제하에서도 독립운동을 통하여 일본의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근

대문명을 학습하여 미래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적 능력’을 두텁게 축적해 나간 점이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에 유익하게 작용했다.

돌이켜보면 구한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북아 지역은 ‘전쟁의 시대’였다.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 중국 국공내전(1927-1937, 1946-1949), 중일의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1945), 미일의 태평양전쟁(1941-1945), 국내 6·25전쟁(1950-1953)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많은 전쟁은 아시아 지역을 참혹한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

청나라는 과거 근대화 과정에서 인접한 나라의 선린관계에서 고종의 부친인 대원군을 납치하고 조선의 독립을 저지하려는 반동적 정책을 펴왔다. 일본은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을 참혹하게 식민지화했다. 소련은 북한의 정부수립을 획책하고 남침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서 전례가 없는 전쟁의 비극을 초래했다. 반면에 미국과 우방 동맹을 맺게 되었을 때 정치발전과 함께 수출입 10위권의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권이 새로 수립되자 개인의 자유와 평등, 공정한 경쟁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민족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최고로 발휘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와 체제는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인 버너드 버루크가 1947년에 최초로 ‘냉전체제(冷戰體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1947년부터 미·소간의 이념적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국내도 좌우대립 및 신탁통치를 둘러싼 노선대립과 더불어 1950년-1953년까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다. 63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북으로 분단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이 이 지역의 균형자로 나선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은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반에 이르는 60년 동안 ‘장기간 평화’를 누린 것은 사실이다. 중국에게도 구한말 이후 100년 만에 찾아온 ‘장기간 평화’의 시기가 국익에 부합되었다. 앞으로 한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싹트고 있는 새로운 세력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개화를 위해 열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적용

구한말 개화파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독립협회와 경성부의 시민, 소상인, 일부 지식인층이 참여하는 제도인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서양 문명과 제도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개혁만이 조선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구한말 5년 8개월 동안 한성감옥에 갇혀 있다가 출옥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은 미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미래의 대한민국 모델로 삼았다. 이와 달리 임시정부의 좌파진영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델로 택했다.

미국에 유학한 우리나라의 제1호 박사는 1893년에 이승만의 스승인 서재필(1864-1951)이 미국에서 최초로 조지워싱턴대학교 의학박사를 어려운 생활에서도 받았다. 제2호 박사학위는 이승만(1875-1965) 박사로 1907년에 2년만에 조지워싱턴 대학교 철학 학사, 1909년에 2년만에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석사, 1910년 1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를 아무런 지원자도 없이 5년만에 전과정을 어렵게 획득했다. 당시 열강으로 유학처인 미국, 영국 등의 대학이 지닌 글로벌 헤게모니를 이들은 획득하였고 일본은 1860년대부터 해외인력이 외교에 십분 활용하여 심지어 국익을 좌지우지하는 협상에 널리 활용하는 사례를 보였다.

10. 2010년 [대한독립전]과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 2010년에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기념> 「대한독립전」 개최

필자는 초상화를 그리는 서양화가로서 2010년에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기념>으로 『대한독립전』이라는 초상화 전시를 개최하였다. 안중근의사를 포함하여 독립운동가 42인의 유화로 그린 초상화를 2년간에 걸쳐 제작하였고 남산에 신축된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안양의 평촌아트홀에서 기획

초대전으로 각각 개최한 것이다. 사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은 소수의 개인이 전개한 운동은 아니었다. 3.1운동을 발단으로 1909년부터 발족한 상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요원, 독립군과 의병·의사(義士) 및 열사, 대한제국의 관료, 종교계 및 문화예술계, 대한독립을 도운 외국인도 힘을 모아 뜻있는 국민 전체가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수반된 것이다.

■ 『대한독립 50인』 책발간과 초상화 전시

따라서 이번에 필자는 대한독립운동의 수많은 공헌자 중에서 지난번 42명을 포함하여 각계 50명의 대표적인 분들을 선정하였다. 이미 유화 작품으로 창작한 초상화와 함께 그들의 일대기를 한권의 책으로 모아서 발간코자 하였다. 앞으로 『대한독립 50인전』의 전시를 개최한다면 도록(圖錄)과 함께 이번의 책인 『대한독립 50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참으로 가치있는 우리 조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시중에서 일일이 해당되는 책을 따로 구할 수 있지만 전부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독립단체에는 여럿이 같이 활동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약 50년간의 시공을 묶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보았다. 독자들께서 보다 손쉽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관련 사진을 같이 편집하여 넣어 보았는데 시각적인 효과로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 했으면 좋겠다.

■ 도마(多默 Thomas) 안중근의사와 잔 다르크

프랑스를 영국으로부터 100년 전쟁(1337-1453)에서 건진 잔 다르크(Jeanne d'Arc, 1412~1431)는 영국의 재판으로 19세의 나이로 화형에 당하여 순국했다. 그러나 사후에는 적국(敵國)인 영국만 아니라 전 세계인으로 부터 애국심과 용감한 인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신화 같은 초상화는 많은 프랑스 화가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 전세계 화가들도 그러서 한권의 책으로 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그녀는 25년 후에 로마 교황이 주관한 종교 재판소에서 그녀가 전쟁 중에 조국을 위해서 살인을 하였지만 나라를 찾기위한 목적이 순수한 구국행위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그녀는 490년이 지난 1920년에 천주교의 성인(聖人)에 올라 성(聖) 요안나 아르크(Sancta

Joanna de Arc)의 이름을 얻었다.

도마(多默 Thomas) 안중근 의사는 1909.10.26일에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하느로서 대한제국 및 중국 전역에서 일제의 압박받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의병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묵묵히 하였다. 그는 여순감옥에서 일본 측의 수사관과 검사들에게 심문에 맞서서 이토를 처분한 이론적으로 확고한 논리와 정연한 국제정세로 감동을 주면서 임했다. 또한 외국에 유학을 나가 학문을 익히거나 국내의 훌륭한 교육기관

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가 행한 의롭고 장한 행위가 민족계몽운동을 낳았고 정치사상가로서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사표(師表)가 되어 우리러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필자가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전시를 할 때 놀랍게도 방문객의 80%가 평소 일본인으로 채우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전시기간에 일본인을 만나 대화도 하였지만 방문한 이유를 평소부터 안의사를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치 일본인들이 자국을 크게 발전시킨 존재로 인정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안의사가 사살한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그의 인간 됬됨이와 박애주의와 동양평화를 회구하는 사상에 일본인도 크게 감복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안의사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떠나서 세계인이 그의 사상과 학술을 존경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잔 다르크(Jeanne d'Arc, 1412~1431)를 그린 미술작품 -

- ①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오를레앙의 성처녀> 캔버스에 유채, 240x178 cm, 1854년 ② 쥘 외젠 르네프뢰 <잔 다르크의 오를레앙 포위전> 캔버스에 유채, 1886년-1890년 ③ 쥘 외젠 르네프뢰 <화형당하는 잔 다르크> 캔버스에 유채, 1886년-1890년 ④ 얀 마테이코 <잔 다르크의 랑스 입성 1429년> 캔버스에 유채, 1886년 ⑤ 쥘 바스티앵 르파주 <잔 다르크> 캔버스에 유채, 254×279,4cm, 1879,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천주교에서 시복시성(諡福諡聖)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으로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이들을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한국 천주교회만큼 애초부터 신부가 없이 자생적으로 출발하여 박해와 순교로 점철된 종교의 나라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전래 초기에 한국 천주교는 조선 왕조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제와 신도가 희생되었다. 성인이 된 시복시성과 현양 활동이 한국 천주교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주교 일부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잔 다르크처럼 시복시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관심을 모아진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 사살한 것은 이기적이거나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에 수용가능한 살인이었다”며 안 의사에 대한 시복시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안 의사가 순국 100주년인 2010년에 천주교 신자로 공인받은 데다가 동양평화론을 제창한 점 등을 들어 성인으로 공경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다수 의견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11. 독립정신과 제4차 산업혁명

■ 독립정신을 위한 역사교육

오늘날의 국제정세도 과거 110년 전후의 시기와 같이 주변 강대국의 정치와 경제적 힘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하여는 우리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과 같이 역사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 그리고 북한의 원폭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미 간의 방위설비 증강문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국제상황에는 전 국민이 뼈아픈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배워나가면서 튼튼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즉 과거를 조명하므로써 현재를 발견할 수 있고 더불어 미래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분명히 우선되는 것은 국방력과 경제력이다. 앞으로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한의 실리적 전략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국력과 애국심(愛國心)을 키워야한다. 이를 위해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증대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국민윤리(國民倫理)와 바른 역사교육(歷史敎育)으로 애국심의 정신을 육성해야 한다

■ 3,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여건에 대한 과제

앞에서 대한제국은 크게 본다면 18~19세기에 걸친 서구의 1,2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화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통하여 수용하고 튼튼하게 적응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시대는 다시 변하여 3,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더욱 가세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 에너지가 융합하여 가져올 협업시대를 의미한다. 1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증기기관, 인쇄술, 석탄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전기, 석유 그리고 근래의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앞으로 인류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제4의 산업혁명」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제4의 산업혁명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실제와 가상을 통합한 사물을 지능기술로 자동 제어하는 산업혁신이다. 21세기의 신기술 즉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드론, 무인자동차, 3차원(3D) 프린터 등 세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차츰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처럼 무기를 가지고 침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넘나 들면서 현대의 인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신기술이 지배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IT와 관련된 정보시대(情報時代)라는 2~3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선형적(線型的)인데 반하여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인 속도에서 빠르게 전개된다. 또한 이는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融合)하면서 개인과 기업 및 사회전반에 걸쳐 인식의 체계인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환(變換)을 초래한다. 또한 국가간, 기업간, 산업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System)의 변화(變化)를 낳는다. 앞으로 우리는 제4의 산업혁명에 뒤쳐 질 때에도 국권(國權)을 상실(喪失)하는 것처럼 정보기술력에 뛰어난 나라에 지배(支配)를 받거나 예속(隸屬)될 수 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 도마 안중근의사의 시복시성(諡福愍聖) 추대

뤼텔 주교는 교회의 보호를 위하여 조선에 부임하면서 1899년에 대한제국에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교민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교는 한국의 자주독립 열망을 사실상 외면했다. 또한 한국의 독립보다 교회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순교자’는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의연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한 증거자"라고 2010년에 당시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총대리(현 추기경)가 밝혔다

안의사는 모범적이고 열렬한 신앙인으로 한 때 빌렘신부가 교우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황에게 청원을 하여 이런 폐단을 막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주어진 종교는 정신이 없는 한낱 육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프랑스의 잔 다르크처럼 도마 안중근의사도 시복으로 추대되고 성인으로 모시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천주교가 일제강점기의 일본에 협력했던 과거는 말끔하게 청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제의 억압에 희생된 모든 국민과 당시의 고난이 보상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성인을 떠나 세계적인 성인으로 숭배되어 전 인류에게 정의와 양심이 현양되는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서울 한 가운데 남산의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전세계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뜻을 지니고 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 경배하는 명소가 될 것 같다. 또한 이를 보는 우리국민은 그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안 의사가 시복 시성될 때, 그분이 지녔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민족사 안에서 영원히 살아날 것이며, 그분의 삶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다.

2010년 [대한독립전]



안중근의사 기념관 [기획초대전] 2010.11.19~11.28 (서울남산)

평촌아트홀 [기획초대전] 2010.12.1~12.7 (안양시)

2010년 [대한독립전]

■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대한독립운동가 42인 초상화 특별전 축하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를 비롯한 대한독립 운동가 40여명의 인물을 그린 ‘초상화 특별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심포지엄과 연극, 영화, 사진 및 유목전 등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이들의 실제 인물을 대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그린 ‘초상화 전시’는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안중근의사 새 기념관 개관기념으로 독립운동가 초상화 특별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응모 이사장의 사진

안중근의사는 20세기가 낳은 동양평화의 위인으로서 교육 사업을 통한 국민계몽운동을 펼치고 의병활동까지 하셨던 애국선열입니다. 구한말 서세동점 시기에 태어나 피압박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구현을 위해 역동적인 삶을 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교육자이며 평화사상가로 그리고 군인으로서 당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적 과제 앞에 홀연히 온몸을 던졌던 민족정기의 화신입니다.

비록 안중근의사는 조국광복을 보지 못한 채 불꽃처럼 살다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지만 이미 100년 전에 주장한 ‘동양평화론’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각 지역의 국가경제공동체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산 교육장인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또한 안양의 평촌아트홀에서 조영규 화가의 작품으로 대한독립 운동가 ‘초상화 특별 개인전’을 갖는 것은 한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전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국가보훈처와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및 행사를 주관하신 서양화가 조영규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11.19 안중근의사 숭모회 이사장 안응모

2010년 [대한독립전] 작가노트

올해 2010년은 [안중근(安重根)의사 순국(殉國)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국권 찬탈 즉 한일강제병합(韓日強制併合) 100년]을 맞는 치욕의 해이기도 하여 여러 의미를 새삼 되새겨 나가야 합니다. 각계에서 여러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술전람회로서 지난 10.26일 안중근의사 의거일에 맞추어 남산에 신축. 개관된 <안중근의사 기념관> 및 안양의 평촌아트홀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장한 모습을 유화작품으로 재현한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기념, 대한독립전]으로 관람객들에게 선 보이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의 작품에는 안중근(安重根), 윤봉길(尹奉吉), 김좌진(金佐鎭), 강우규(姜宇奎), 이재명(李在明), 홍범도(洪範圖), 유관순(柳寬順), 이봉창(李奉昌), 박재혁(朴載赫) 등의 의열(義烈)과 과거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에서 광복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승만(李承晩), 김구(金九), 이시영(李始榮), 신채호(申采浩), 박은식(朴殷植), 조소앙(趙素昂), 이동녕(李東寧), 안창호(安昌浩), 이회영(李會榮) 등의 지도자들과 남자현(南慈賢), 김마리아(金瑪利亞), 안중근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趙瑪利亞) 여사 등 여성(女性) 들과 험버트, 스코필드, 장개석(蔣介石), 손문(孫文) 등 외국인(外國人)도 포함된 40여명이며 이분 중에는 처음으로 유화작품으로 그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하고 순수한 민족정기를 지닌 분들의 충절한 정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헌을 접해보면 누구나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본인은 첫 개인전부터 서른 명의 초상화를 전시하고 나서 매번 초상화와 풍경화 작품을 함께한 초풍전(肖像展)을 개최하였는데 특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작품 활동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전시를 위하여 작년부터 관련 자료와 문헌수집을 위하여 각지의 기념관 현장을 찾아보았고 관계자를 면담하였으며 특히 제작에 전념하면서 이 분들의 숭고한 활동과 헌신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통해 새삼 알게 되어 크게 감동

을 받았습니다.

사실 독립운동가의 모습은 몇 군데 기념관을 제외하고 거의 흑백사진 등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하여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여 항상 우리 곁에 바로 곁에 살아있는 것처럼 접하게 된다면 우리들 인간의 삶 자체도 더욱 고양될 것이며 오늘날 다함께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나갈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초상화는 사실 얼굴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순수한 민족정기를 지닌 분들의 충절한 정신 이나마 관람객에게 조금이라도 보여 줄 수 있다면 오래토록 이어져 온 작업에 의미 있는 결실로 다가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11.19일부터 11.28일까지 10일간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기념, 대한독립전> 특별 전시 이후에도 이어서 안양의 평촌(坪村)아트홀에서도 12.1일부터 12.7일까지 7일간 <안중근의사 순국100주년 기념, 대한독립전>의 招待個人展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품 일부는 11.15일부터 11.17일까지 3일간 國會 議員會館(1층 로비홀)에서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독립운동유공자展>에 참여하여 團體展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번 전시를 위하여 전시장 제공과 전시추진, 자료제공 및 후원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안중근의사 송모회,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위원회, 독립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 전쟁기념관, 우당 이회영기념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안양시청 및 안양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작품 활동과 제작에 격려해 주신 여러 기관 및 여러분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영화실에서 서양화가 조영규

2010.10월



안중근의사 기념관의 <대한독립전> 2010.11.19-11.28

주요 참관자 :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응모 이사장, 이종찬 전 중앙정보부장(이희영 손자), 박삼중 스님, 이종문 일가족(이시영 손자), 안재홍 기념관 인사, 헬버트 기념관 인사, 독립기념관 학예실장, 전쟁기념관 인사, 한국여성총경영자협회,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협회 임원, 안양미협 임원 등



안양시 평촌아트홀 <대한독립전> 스냅사진, 2010.12.1-12.7

주요 참석자 : 최대호 안양시장(기념축사), 신중대 전임 안양시장, 권혁록 시의회의장, 배양호 평촌성당 주임신부, 윤봉길기념관 양승학 사무처장, 정신여고 재단이사장, 오전동성당 전합수 주임신부 등



<대한독립전> 작업중의 안양화실 내부

chosun.com

사회

뉴스오피니언경제스포츠연예라이프건강포토·영상

사람들 >

독립운동가 42인 초상화展 여는 조영규씨
"生 다할 때까지 순국선열 그릴 겁니다"

김남인 기자

일력 : 2010.11.20 03:31

f 0

...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안중근·윤봉길·김좌진... 유화로는 처음 그려져"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42인의 얼굴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개와 절박함에 압도당하지요. 그런 뉘를 계속 그려서 후대에 남기고 싶습니다."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19일 독립운동가 42인 초상화전이 열렸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려 열리는 전시로, 안 의사를 비롯해 윤봉길·김좌진·이승만·신채호 등의 유화가 걸렸다. 초상화가 조영규씨가 사진이 남아있는 선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들이다.

"대부분 유화로는 처음 그려지는 인물입니다. 화가들에게 의뢰도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팔리지도 않으니깐요. 유화는 사진이나 다른 그림보다 수명이 길어서 몇백년 보존됩니다. 오래오래 남길 수 있죠."

미국조상화가협회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인 그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려 되도록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한 외국의 전통이 뿌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조상화가협회도 만들고, 화가로서의 여생을 순국선열의 초상화를 그리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조씨는 지난 2년간 먹고 자는 시간 외엔 온통 그림에만 쏟았다고 했다. 사진 외에도 역사 기록과 평전 등을 최대한 수집했다. "빛바랜 사진만으로는 한 인물을 온전히 살려내기 힘들어요. 그의 삶을 폭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들여 한 장 한 장 그려나갔지만, 그의 작품들을 걸어주겠다고 나서는 미술관은 없었다.

"모두들 기존 일정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인 올해, 안 의사가 살았던 시대를 기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무료료 대관을 허락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19~28일은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다음 달 1~7일은 평촌아트홀에 걸린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제휴안내 · 구독신청



100호 캔버스에 독립운동가 32인을 그린 집단초상화 -미완성작